

# 수돗물 안전

통권 296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위해 주세요

05 2024



##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하라!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현대제철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며 LNG 자기발전소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올바른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



“현대제철 LNG발전소 중단! 탄소중립 이행하라!”



당진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 '나도 시민과학자' 발대

- ▶ 발행일 2024. 5. 10.
- ▶ 발행인 손창원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의자 / 이정록

### 4. 지역환경이슈1

| 당진화력, 석탄화력 중 온실가스 2위, 대기오염물질 2위

### 6. 지역환경이슈2

|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

### 7. 지역환경이슈3

| “현대제철 LNG발전소 중단! 탄소중립 이행하라!”

### 8. 지역환경이슈4

|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집회

### 9. 지역환경이슈5

| 당진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 ‘나도 시민과학자’ 발대

### 10. 지역환경이슈6

| 현대제철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11. 충남환경이슈1

| “굴뚝 먼지 감내해 왔는데 충남에 원전? 총선후보들 입장 밝혀야”

### 12. 충남환경이슈2

| 세종보 재가동 초읽기... 수몰지서 ‘결사항전’ 천막농성 돌입

### 13.충남환경이슈3

| “후쿠시마 오염수 5차 해양 투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

### 14. 지구환경! 관심이슈?

|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 심각성에 대응 실패

### 16. 전국환경이슈1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습137’ 꺾충 뛰었다

### 18. 전국환경이슈2

| “삼척화력 가동, 미래세대에 염치 있다면 멈춰라”

### 19. 4월 살림살이

### 20. 4월 활동소식

### 22. 5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의자

## 이정록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 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작가소개

### 작가 이정록

이정록(李楨錄, 1964년 음력 7월 29일 ~ )은 대한민국의 시인이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학 한문교육과를 졸업했다.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시 〈농부일기〉가,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혈거시대(穴居時代)〉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2001년 제20회 〈김수영문학상〉, 2002년 제13회 〈김달진문학상〉, 2013년 제8회 〈윤동주문학대상〉, 2017년 제5회 〈박재삼문학상〉, 2021년 제28회 〈한성기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화in) 만해문예학교장이다.

# 당진화력, 석탄화력 중 온실가스 2위, 대기오염물질 2위

2023년 온실가스 2250만톤, 대기오염물질 5,007톤 배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가 2023년 한 해 동안 2,250만톤의 온실가스와 5,007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대안화력발전소(이하 대안화력)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두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당진화력은 1,081만톤의 석탄을 태워 27,197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석탄발전설비의 이용율은 51.4%로 전년도에 비해 1.42%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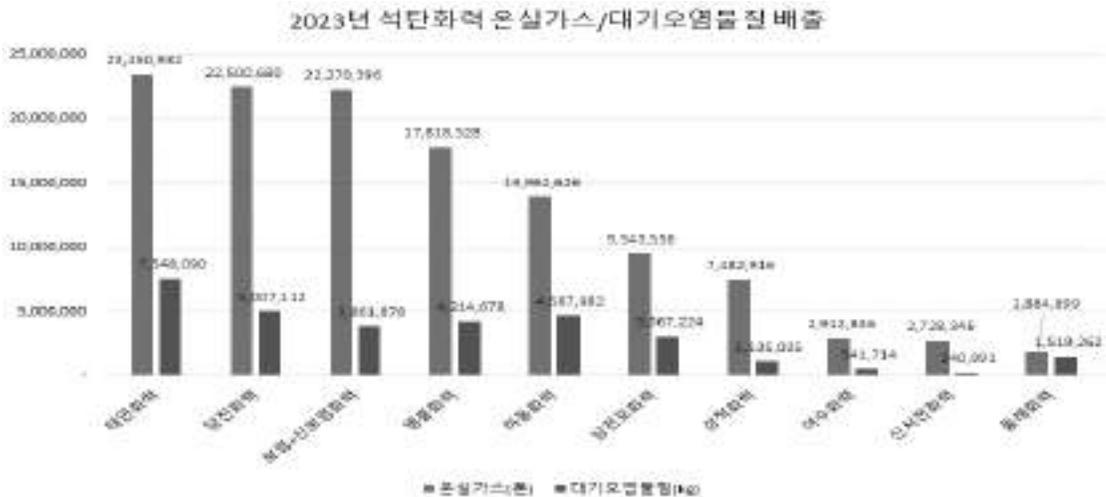
당진화력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2,500,680톤으로 23,450,98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안화력에 이어 전국 석탄화력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2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23,352,270톤에 비해 3.65%, 851,590톤이 줄었다.

또한 당진화력은 2023년에 굴뚝을 통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5,007톤을 배출해 7,548톤을 배출한 대안화력에 이어 전국 석탄화력 가운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2위를 기록했다. 당진화력의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 6,156톤에 비해 18.67%, 1,149톤이 감소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화력의 발전량은 전년도보다 2.67%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8.67%가 줄었다. 발전량 감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설비 개선의 결과”고 밝혔다.

이어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유지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루 빨리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 4. 22.  
당진환경운동연합



## 석탄화력발전소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지역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톤)
1	충남	태안화력	23,450,982
2	충남	당진화력	22,500,680
3	충남	보령+신보령화력	22,270,396
4	인천	영흥화력	17,818,528
5	경남	하동화력	13,962,626
6	경남	삼천포화력	9,543,556
7	강원	삼척화력	7,482,916
8	전남	여수화력	2,912,836
9	충남	신서천화력	2,728,346
10	강원	동해화력	1,884,899

[출처 : 정보공개청구 자료\_비공개 민자 석탄화력발전 제외]

## 2023년 굴뚝자동측정기(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지역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
1	충남	태안화력	275	3,976	3,297	7,548
2	충남	당진화력	168	2,684	2,156	5,007
3	경남	하동화력	163	2,109	2,416	4,688
4	인천	영흥화력	128	2,495	1,592	4,215
5	충남	보령+신보령화력	209	2,188	1,465	3,862
6	경남	삼천포화력	108	1,491	1,469	3,067
7	강원	동해화력	20	1,115	384	1,519
8	강원	삼척화력	116	369	650	1,135
9	전남	여수화력	24	107	411	542
10	충남	신서천화력	8	75	158	241

[출처 : 정보공개청구 자료\_비공개 민자 석탄화력발전 제외]

## ‘지구의 날’ 맞아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벚꽃길 걷기 및 나눔·체험행사 열려  
시곡2동 ‘탄소중립 시범마을’ 최초 선정



4월 13일 지구의날 기념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체험부스로 ‘유리병아 개운죽을 키워줘’를 운영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가 지난 13일 대덕동 어름수변공원과 당진천 벚꽃길 일대에서 열렸다.

지구의날 추진위원회(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진YMCA)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당진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벚꽃길을 걷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당진지역의 기관·단체·기업에서 준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 △탄소중립 체험부스 △친환경물품 및 농수산물 장터 등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폐건전지·우유팩·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개회식은 퓨전국악 얼씨구(RC9)의 공연과 탄소중립에 관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의 개회사와 여기구 국회의원, 김덕

주 당진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마을’로 선정된 시곡2동(통장 차민희) 마을회가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시곡2동은 앞으로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건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되고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녀들과 행사에 참여한 김지연 씨(송악읍 기지리)는 “맘카페를 통해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됐다”며 “탄소중립이나 업사이클링 활동을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시대]

## “현대제철 LNG발전소 중단! 탄소중립 이행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캠페인 진행  
“LNG발전소 건설은 전기요금 아끼려는 꼼수”

4월 22일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추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2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현대제철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고 LNG 자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올바른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차 금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3379만톤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3억5048만톤)의 38%,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7664만톤)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은 2021년 2849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현대제철이 지금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050년 탄소 감축목표가 21.9%에 불과하다”며 “현대제철이 2월에 인근 마을을 돌며 설명회를 열 때는 LNG발전소를 2050년까지 수소발전소로 전환해 탄소배출량을 0톤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발전소 건설은 탄소중립 추진 투자가 아니라 전기요금 아끼려는 꼼수이며 전형적인 그린워싱(기업이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현대제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발전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모자를 쓴 시민들이 LNG발전소와 돈다발을 끌어안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화석연료 퇴출’ 망치로 응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업을 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규탄발언과 성명서를 발표한 뒤에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태양광발전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모자를 쓴 시민들이 LNG발전소와 돈다발을 끌어안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화석연료 퇴출’ 망치로 응징하는 퍼포먼스로 캠페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철강부문 탄소중립 전국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고로제철소가 가동 중인 충남 당진, 경북 포항, 전남 광양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출처 : 당진시대]

##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집회

“사람은 17만 명인데, 돼지 30만 마리 들어온다고?”

축산단지 실시계획용역비 12억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석문·송산·고대 중심 대책위 결성…충남도청 앞 집회  
오성환 시장 “반대 입장” 표명…김태흠 지사 “깊은 유감”



지난 24일 당진시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가 당진의 석문간척지에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당진 시민 300여 명이 충남도청을 찾아 집회를 열고 대규모 축산단지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축산복합단지 실시계획용역비 예산안 12억 원이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당진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관련 예산안은 전액 삭감됐다. (중략)

충남도는 당진의 석문간척지와 보령·서천의 부사간척지에 각각 돼지 30만 두 사육 규모의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부터 도축, 가공까지 전 과정을 집적한 일종의 축산 산업단지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사료작물 재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략)

대규모 축산단지를 반대하는 당진시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실시계획용역비 예산 12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지역주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중략)

예결특위 결과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깊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략) “충남도가 선도하고자 하는 미래축산 개혁 방향을 도의원들이 편견 없이 바라보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한다”며 간척지 내 대규모 축산단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중략)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석문면 순방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 당진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 '나도 시민과학자' 발대

학생 시민과학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활동 개시 눈앞



지난 4월 20일 당진시대 5층 교육실에서 참가 학생 20명과 함께 '나도시민 과학자'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 20일 '나도 시민과학자' 발대식이 개최됐다. 발대식에서는 시민과학자 위촉장 수여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당진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선발된 참여자는 학생 시민과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나도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환경보전활동 및 캠페인 일환으로 현대제철 후원을 받아 월드비전 주최, 한국생태관광협회·시민환경연구소·(주)엔에스생태연구소 주관으로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생태환경교육연구소 풀씨·우리씨앗연구소)와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된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태환(수청중 1학년)학생은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지만 평

상시 동물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 더 많은 생물들을 알아보고 관찰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고, 생물다양성에 대해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도 시민과학자 참여자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수료식까지 약 두 달간 8차시에 걸쳐 당진 주요 생물서식처에서 조류, 어류, 식물, 저서생물 등 다양한 생물군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당진지역 시민과학 생물상 목록으로 기재될 예정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생태에 관심과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당진신문]

## 현대제철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현대제철LNG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폐수' 논란  
현대제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오염 저감방안 강구할 것”  
어촌계 주민들, 온배수 바다로 방출 “당진바다 모르는 소리” 반발



현대제철 LNG발전소 설치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출처:당진신문]

지난달 30일 송악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당진지역 시민단체와 현대제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LNG발전소 조성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어촌계주민들은 온배수 배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중략)

이날 설명회는 'LNG자가용전기설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환경영향 평가(초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중략)

주민설명회 끝에 질의응답 순서가 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전진이엔지 임윤수 대표이사는 “해수보다 6.5℃ 높은 온배수를 인근 해역에 방류하더라도 해양 생태계에 끼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촌계 주민들은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남은 주민들이 견해차를 보이며 욕설과 고성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중략)

현대제철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 중 하나로 2028년까지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당진 제철소에 499MW급 LNG자가발전설비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부생가스 발전량은 감소하는 한편 전기로 투자에 의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분산전원 정책 및 복합발전 전환 정책에 부응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기보다 LNG 발전소를 건설해 생산할 전기가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가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LNG 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2050년까지 수소발전 설비로 전환한다. (중략)

현대제철 측은 “고로를 멈추고 수소발전소로 전환하는 시기는 대외비로 밝힐 순 없지만 LNG 발전소에서 수소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 “굴뚝 먼저 감내해 왔는데 충남에 원전? 총선후보들 입장 밝혀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보령행동 등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지난 4월 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의 석탄발전 폐부지에 소형핵발전소 건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형원자력발전소(SMR) 건설 관련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된 충남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핵발전소를 짓는 계획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SMR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보령행동,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최소 3기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SMR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SMR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에 SMR을 건설하는 문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 좌우 등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석탄발전 소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SMR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에 인력, 자본, 기술 등을 제공해 온 희생의 땅이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에너지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올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의제가 있어서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SMR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해 왔다. (중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세종보 재가동 초읽기... 수몰지서 '결사항전' 천막농성 돌입



지난 4월 30일 세종보 상류 하천부지에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강·낙동강·영산강 활동가 연대 기자회견.. “수문 닫으면 물떼새 학살”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강은 녹조가 가득한 악취 펄발 강이다. 생명의 온기는 사라지고 공허한 기계음만 들리는 죽은 강이다.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수달과 고라니가 노니는 생명의 강이 아닌, 의미 없는 논쟁만 오가는 더러운 정치물이 판이다.”

세종보 상류 하천부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환경단체가 3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이들이 농성천막을 친 장소는 세종보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한두리대교 교각 밑으로, 4m 높이의 세종보 수문을 닫는다면 수몰되는 곳이다. 그 시각,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밑에선 포클레인과 트럭이 연신 오가며 5월로 예정된 보 수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 금강, 낙동강, 영산강 활동가들이 친 ‘연대의 농성 천막’

이날 기자회견문은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명의로 발표됐다. 세종보와 공주보 재가동 중단과 물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연 이날 회견에는 세종, 대전충청 지역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낙동강·영산강 네트워크’ 등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2 4대강 사업’에 맞서온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략)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종보는 해체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였다”면서 “환경적으로도 문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성 평가 결과, 해체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3배나 크게 나왔는데도 지금 30억 원이라는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 부어 사실상 죽어있던 ‘좀비보’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 정상화, ‘재해 예방’, ‘소수력 발전 가동’,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의 모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물 정책은 세계적인 물 정책 추세를 역행하는 최악의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필사의 각오로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짓고 정부의 악한 정책을 막아 서려 한다”고 선언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후쿠시마 오염수 5차 해양 투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수산물 가공품도 방사능 전수조사 해야”



4월 19일 충남도청브리핑룸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오염수 5차 해양 투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주문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해양투기했다. 이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7번에 걸쳐 버릴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은 도내 유통되는 주요 품목 및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다”라며 “충남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결과서가 함께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

공식품은 제외되어 있다. 방사능에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사용 식재료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된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중략)”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충남도지사는 핵오염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수입 수산물을 조사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물론 가공식품도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을 등한시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하 생략)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 심각성에 대응 실패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하다  
INC 5차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



2024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4차 회의(INC-4)가 종료되었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가득했던 본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

각국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되는 화학 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본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기 간 작업에서 업스트림(Upstream)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협은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플라스틱의 핵심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과정의 야망을 약화시킨 결정이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오타와에서 7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야심찬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하는 챔피언은 누구이며,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에 굴복하는 빌런은 누구인지가 드러났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르완다/페루 제안 외에도, 여러 국가가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플라스틱 폴리머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 해결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이자 마지막 협상을 위한 추진력을 구축하도록 당사국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이며, 추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구성된 '빌런'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려 했다.

오타와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각국은 아직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불충분한 문안을 가지고 떠나게 됐다. 초안이다 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삭제된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더 많으며, 수많은 옵션과 괄호(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가득 찬 문안이 만들어졌다. 소수의 국가들이 조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다양한 조항의 문구를 뻘뻘스럽게 왜곡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방해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

다. 그러나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전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사실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회기 간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야망이 제한되고 있다.

화석 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야망이 낮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주 초, CIEL(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이 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이다.

INC-5로 향하는 길에서, 국가들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 펜스라인/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화석 연료 추출의 피해와 소각 및 화학 물질 재활용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 왔다. 또한 그들은 비독성 재사용 시스템과, 원주민 관행과 같은 진정한 순환 해결책을 촉구해 왔다.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한다.

2024. 5. 2

플뿌리연대

[출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오염수 방류 뒤 '세슘137' 꺾충 뛰었다

환경운동연합, 일 후생노동성 검사결과 재분석

**2023년도 일본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 현황**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6,317	659	4.0%
농산물	16,232	2,203	13.6%
축산물	8,078	84	1.0%
야생조수육	1,601	587	36.7%
기타가공식품	2,170	95	4.4%
유류·유아음식물	1,360	0	0.0%
총계	45,750	3,628	7.9%

자료: 식품안전·농림2023년 1월~12월 방위 과학정보센터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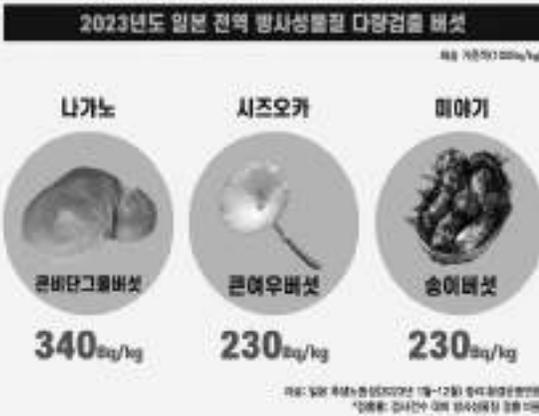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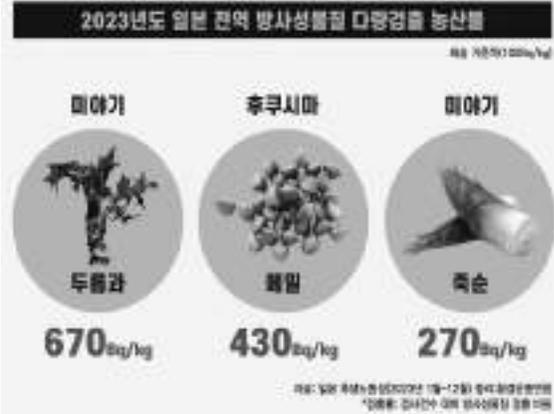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Bq/kg(베르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Bq/kg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



**2022년과 2023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품목	2022		2023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2022	2023	2022	2023
수산물	18,078	90,317	897	999	6.3%	4.8%
농산물	10,447	16,232	2,208	2,263	21.1%	13.6%
축산물	8,301	8,879	162	84	2.8%	1.0%
야생조수목	3,227	1,801	835	587	29.8%	36.7%
기타가공식품	2,184	2,170	137	81	6.3%	4.4%
합계	36,156	49,759	4,142	3,821	11.5%	7.9%

자료: 일본 후쿠시마현(2023년 1월~12월) 중대 환경오염방지  
\*검출률: 조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건수

간 0.63Bq/kg에서 4Bq/kg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습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Bq/kg, 540Bq/kg의 세습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습 기준량을 100Bq/kg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 “삼척화력 가동, 미래세대에 염치 있다면 멈춰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마지막 화력발전소’ 상업운전 계획 중단 촉구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자회사가 건설...탈석탄 흐름 역행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삼척에서 삼척블루파워 1호기 상업운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했다.

‘지구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삼척에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운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애초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4월 19일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운영이 연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는 1호기가 5월 중, 2호기가 9월 중 완공돼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블루파워의 가동은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을 줄이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제사회 흐름에 반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7일 총선을 앞두고 핵발전 정책을 강조하며 전력 부문에서

약 1000만t(2022~2023년)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면 연간 내뿜는 온실가스량은 약 13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발전소 하나로 그간의 정부 노력이 수포가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한국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삼척블루파워의 수명은 30년으로 2054년에야 가동을 마친다. 그럼에도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허가했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뒀으며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겠다고던 윤석열 정부에서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피해도 크다. 포스코가 삼척 맹방 해변에 유연탄 하역장을 지으면서 해안침식이 진행되는 등 해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재킷 사진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던 바로 그 해변이다. 이 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도 문제다. (중략)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터와 삼척 시내 중심부는 불과 5km 떨어져 있다.

이날 집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했고, 전국의 시민들과 삼척의 주민들이 참여했다.(이하 생략)

[출처 : 주간경향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4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8,254,583	인건비	급여	4,660,000
회 비	개인회비	5,005,000		퇴직적립금	420,70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603,270
	계	5,075,000		계	5,683,97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	경상비	업무추진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53,820
	계	-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250,000		지급수수료	311,280
	계	250,000	기타운영비	94,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560,00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
	계	-		생활환경사업	598,34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350,000
	계	-		홍보사업	196,320
기타수입	기타수입	46,520		모금사업	-
	계	46,520		연대사업	492,103
전입금	전입금	-		기타사업	60,000
	계	-		계	1,696,763
차입금	차입금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15,685,370
				계	15,685,370
월수입 총계		5,371,520	월지출 총계		7,940,733
수입 합계		23,626,103	지출 합계		23,626,103



### 생물다양성 '나도 시민과학자' 모니터단 회의

4월 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생물다양성 모니터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4월 운영위원회 회의

4월 3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4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철강 캠페인 활동가 워크숍

4월 8일~9일 전국의 철강 관련 활동가들과 함께 당진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및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 남부노인복지관 환경교육

4월 9일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나도 시민과학자’

#### 참가 학생들 생물다양성 교육

4월 28일 당진천 일대에서 ‘나도 시민과학자’ 참가 학생들이 지역의 들풀과 꽃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1인 시위

4월달 매주 금요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임원들이 돌아가며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5/02 이사회 회의 및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현대제철 LNG발전소 대응 회의 - 온라인
- ❖ 5/03 환경의 날 기념 사업 준비 회의 - 당진시청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8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5/07 2024총선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 워크숍 - 내포혁신플랫폼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5/08 환경운동연합 탈석탄운동 전략회의 - 온라인  
위기충남공동행동 해산평가회의 - 온라인  
5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5/09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협약식 - 신성대 산학협력관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 서울 참여연대 회의실
- ❖ 5/10 LNG관련 워크숍 - 보령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9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5/12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나도 시민과학자' 3차시 교육 - 음섬포구
- ❖ 5/13 충남 정의로운전환 포럼 특위 관련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5/14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기자회견 - 충남도청
- ❖ 5/16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5/17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20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모금TF 회의 - 아산시민연대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위 회의 - 당진시청
- ❖ 5/18 2024년 제1차 해변 환경정화활동 - 석문방조제
- ❖ 5/19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나도 시민과학자' 4차 - 음섬포구
- ❖ 5/24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21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 5/26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나도 시민과학자' 5차 - 당진천
- ❖ 5/27 녹색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5/28~5/29 녹색철강 활동가 워크숍 - 포항
- ❖ 5/3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 5/31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22차 1인시위 - 구터미널 로터리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5월 27일(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삼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자현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창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여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종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난영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은승채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미 이순영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석 이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진선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본환 정봉식 정석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서운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흥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옥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5월 6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시민과 함께

지금 우리 바다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인간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조금씩 변화 시키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4년 5월 18일(토) 오전 9시 장소: 석문방조제

- 9시 문예의전당 주차장 출발, 12시 당진 도착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봉사시간 3시간 적용됩니다.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전을 이어주는 정글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 2024년 세계환경의날 기념 시민과 함께, 환경 한마당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지구를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날짜 2024년 6월 1일(토)  
오전 10시~15시 까지

장소 당진시청 야외무대

### 프로그램

1.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 유치부, 초등부 환경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
  - 준비물: 돛자리, 그림그리기 도구 등 (도화지는 배부)
2. 잠자는 화분에 공기정화식물 심기
  - 집에서 안쓰는 화분 1개를 가져오시면 식물을 심어갈 수 있음 (지름 15cm~20cm이하)
3.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커피, 오미자, 유자차를 무료로 드림
4. 우유팩, 건전지 가져오시면 화장지, 쓰레기봉투로 교환

※참가 및 문의 : 041-355-7661(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